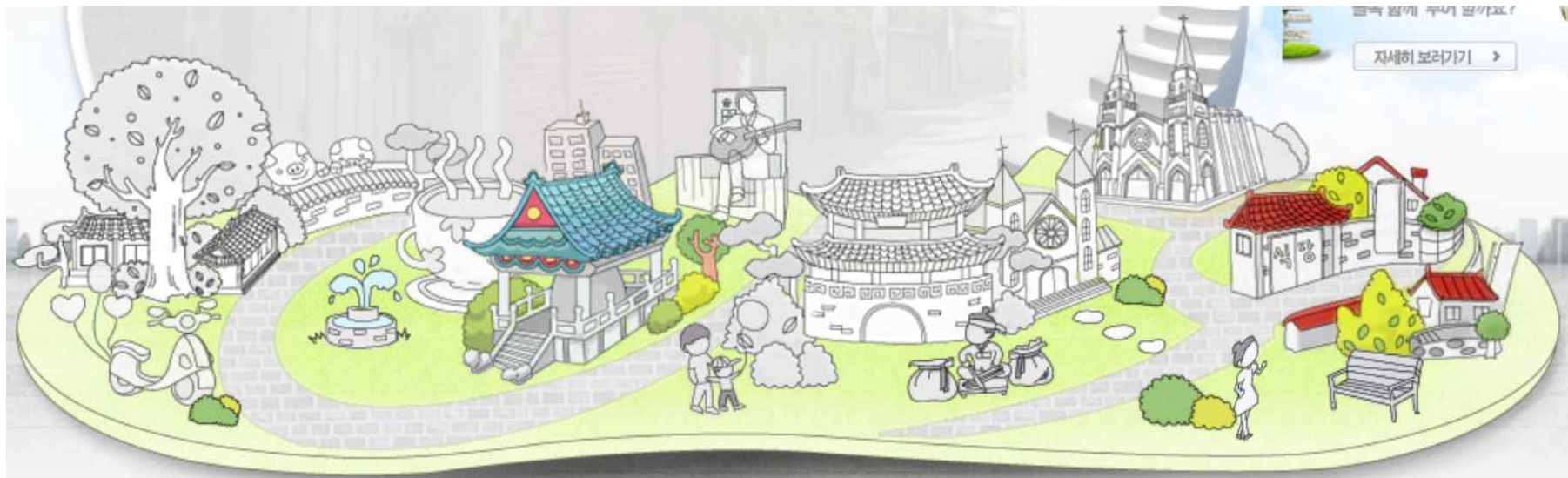


# 대구 근·현대 역사와 장소마케팅

- 대구 근대路의 여행을 중심으로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조현미

## 1. 도시재생

**개념** : 대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외부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쇠퇴 현상을 방지하며, 중심 시가지의 재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도시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구하는 것

**배경 :** 영국, 미국 등지에서 1950년대 이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도심의 교외화 현상과 도심쇠퇴에 따른 대응책. 도심쇠퇴는 도시경제기반의 악화를 불러왔고 실업률이 증가되어 범죄 등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졌다. 도심의 이와 같은 공동화현상, 사회 및 환경문제들이 발생하자 영국 및 미국의 오래된 도시들은 도심지의 쇠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도심재생 정책과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된다.

**정책방향 :** 신도시와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침체되거나 쇠퇴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활력과 기능을 도입하여 재창조.



## 도시재생의 방법

### 1.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재생방법

- 쇠퇴한 도심지역을 활성화하고 재생하기 위하여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이라는 특수성을 보전하고 도시 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훌륭한 전략

### 2.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생방법

- 노후화된 도시공간을 매력적인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더불어 방문객, 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 기능을 부여하는 것.

### 3. 도시마케팅을 통한 재생방법

- 기존 도시 및 쇠퇴공간의 이미지를 재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문화전략
- 도시의 차별화된 기능 유치와 상품성을 홍보하는 도시마케팅을 통한 재생방법 실시

### 4. 연계정책을 통한 재생방법

- 재개발 위치가 도심으로부터 도시 전역, 주택 연계에서 모든 시설들 간의 연계로 확대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 2. 장소마케팅

### 장소마케팅의 개념

-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기업가(투자가)와 관광객, 심지어는 지역 주민에게 까지 그 장소를 판촉하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Philo and Kearns, 1993)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

### 장소마케팅 전략

- 장소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장소의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관광객 등의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

### 장소마케팅에 있어서의 컨텍스트(context)

- 모든 장소는 과거와 현재의 컨텍스트 상에 존재한다
- 장소는 그 장소 조직들의 끊임없는 변화와 생성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 일련의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문화, 전통, 풍토 그리고 사회적 상황 등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장소의 컨텍스트를 형성한다
- 장소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환경과 사건, 기억이 담겨 있으며 이와 같은 컨텍스트는 장소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할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요소이다

## 장소마케팅의 구성요소

1. 지속성   2. 진정성   3. 통합성   4. 연계성   5. 경제성

###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한 장소 마케팅



그림 출처 : [비상학습백과 중학교 사회](#)





## 지역의 고유 특성을 이용한 장소 마케팅 사례



### 3. 대구의 도시재생과 장소 마케팅

비전

든든한 재생기반 마련, 지속적 재생문화 확산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대구 재창조

목표

도시균형발전 실현

지역활성화 촉진

재생문화 공유

전략

생활권  
맞춤 재생  
유도

수요대응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통합형  
재생사업  
촉진

재생공유  
네트워크  
강화

과제

- 10대 생활권 기반 재생권역 설정
- 도시재생혁신지구 발굴·추진
- 재생권역 특성화구상 검토

- 뉴딜사업에 대응한 활성화지역 지정
- 유연한 활성화계획 수립지원
- 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규제완화

- 노후 택지·공동주택 재생 여건 마련
- 전원형 도시재생 사업 특성화유도
- 산업재생 투자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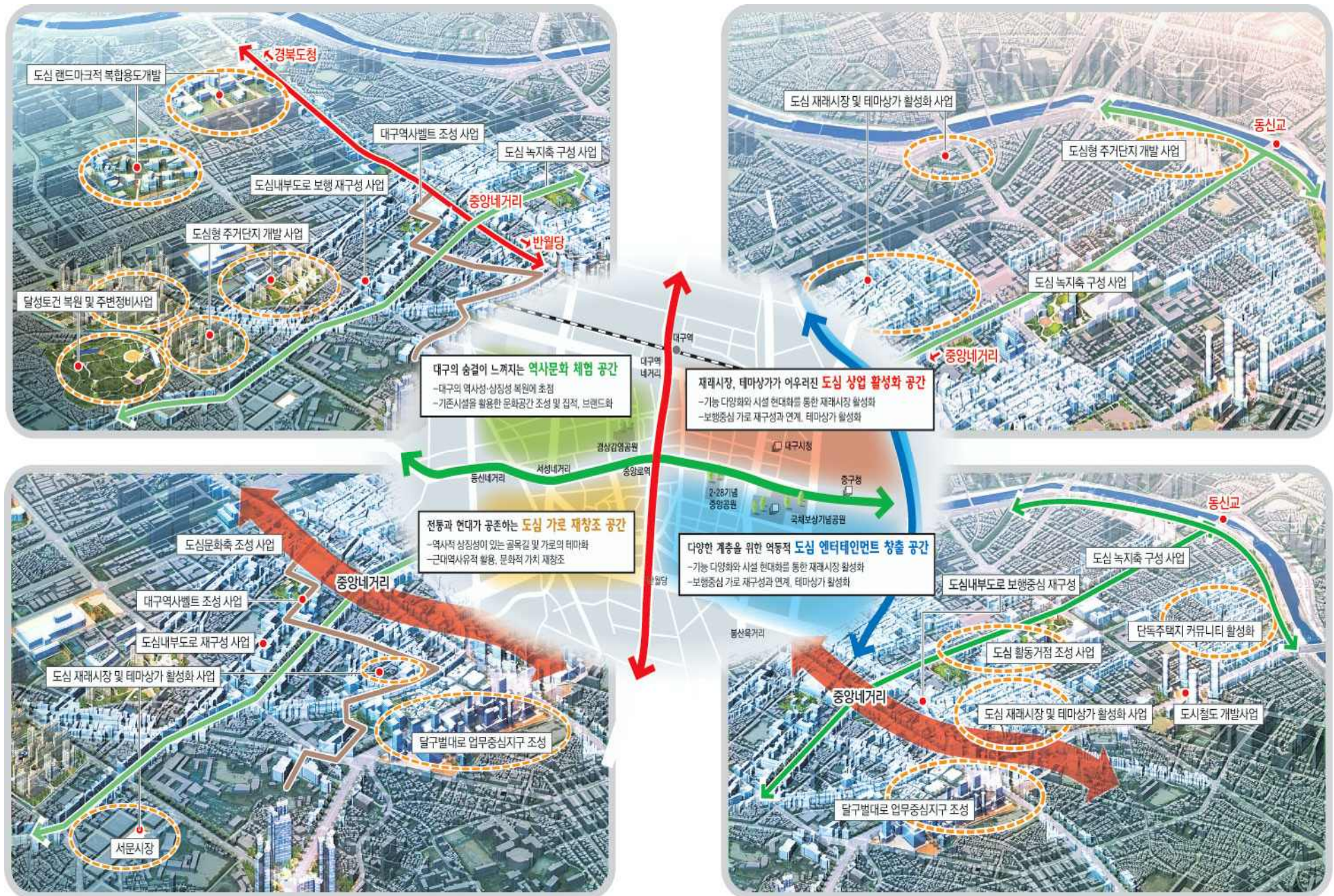
- 각 부처사업 연계 강화
- 지속적 생활 SOC 정비·확충
- 저층 주거지 관리 체계화

- 도시재생 지원조직 통합유도
- 국내외 재생공유 네트워크 구축
- 재생문화 선도지역 지정·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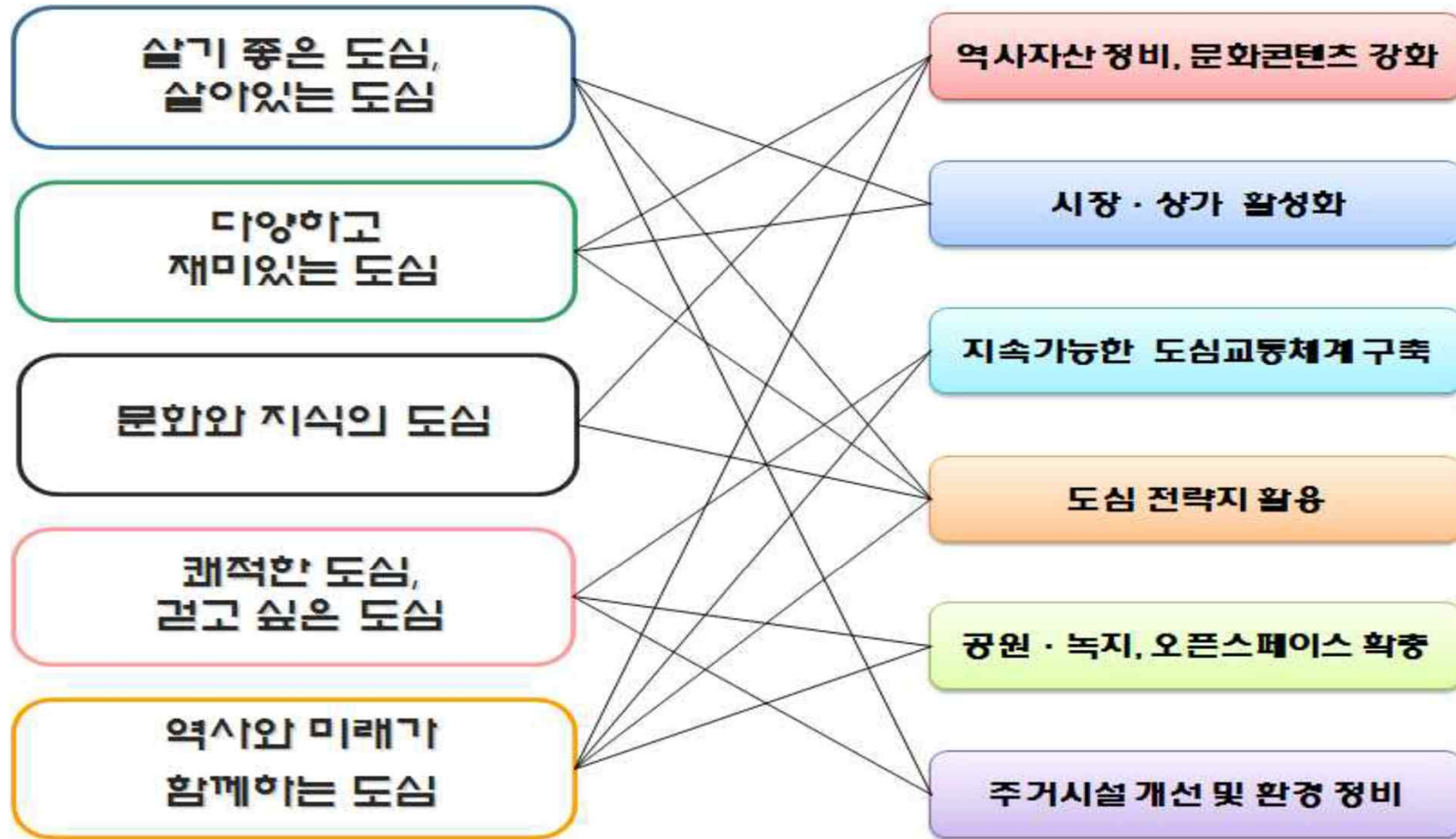
## 대구 도심재생 기본 구상(2009. 4)

## 도심을 4개 공간으로 구분





## 대구시 도심 재생의 목표와 부문별 전략



도심 재생의 5대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의 사회, 경제, 문화, 역사, 환경, 교통 등 도시를 다루는 전 분야에 걸쳐서 목표에 부합되는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

# 대구시 도심 재생을 위한 장소 마케팅 구상

## ■ 도심공간 구상

- 도심 활동구조에 따른 공간의 테마화
- 파편화된 도시공간의 관계 맺기와 장소성 창출

## ■ 테마별 도심공간 구상

- 테마1 : 역사문화 체험공간
- 테마2 : 도심상업 활성화 공간
- 테마3 : 도심가로 재창조 공간
- 테마4 : 도심 엔터테인먼트 창출 공간

**전략사업 1****대구 근대역사벨트 조성 사업**

- 전략사업 1-1 : '중로의 추억' 중로 재생  
전략사업 1-2 : 경성감영공원 역사테마공원화  
전략사업 1-3 : 항촌동 전후 문학사 흔적 복원

**전략사업 2****도심 랜드마크적 복합용도개발 사업**

- 전략사업 2-1 : 시민운동장 부지 복합용도개발  
전략사업 2-2 : 제일모직 부지 복합용도개발

**전략사업 3****달성토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 전략사업 3-1 : 달성공원 역사테마공원화  
전략사업 3-2 : 달서천 복원 및 주변 재개발

**전략사업 4****도심내부도로 보행중심 재구성 사업**

- 전략사업 4-1 : 도심내부 보행자 중심도로 설정  
전략사업 4-2 : 거점 공영주차장 위주 도심 주차장 운영  
전략사업 4-3 : 도심 순환버스 운영

**전략사업 5****도심 재래시장 및 테마상가 활성화 사업**

- 전략사업 5-1 : 서문시장·칠성시장 복합사회문화공간 조성  
전략사업 5-2 : 교동시장·염매시장 테마형 시장 조성  
전략사업 5-3 : 약전골목의 재창조

**전략사업 5****도심 재래시장 및 테마상가 활성화 사업**

- 전략사업 5-1 : 서문시장·칠성시장 복합사회문화공간 조성  
전략사업 5-2 : 교동시장·염매시장 테마형 시장 조성  
전략사업 5-3 : 약전골목의 재창조

**전략사업 6****도심 녹지축 조성 사업**

- 전략사업 6-1 : 신천대로 수변공원 조성  
전략사업 6-2 : 국채보상로 그린웨이 조성

**전략사업 7****도심 활동거점 조성 사업**

- 전략사업 7-1 : 공평주차장 부지 놀이중심 복합테마공간 개발  
전략사업 7-2 : 2.28기념중앙공원 광장 조성  
전략사업 7-3 : 지식테마 창조형 도서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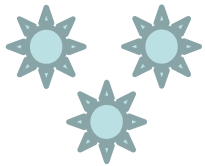
**전략사업 8****도심 문화축 조성 사업**

- 전략사업 8-1 : 시민회관 지하도 문화공간화  
전략사업 8-2 : 중앙로 일대 소극장 집적지 조성  
전략사업 8-3 : 도심 일원 '33 공연장' 조성  
전략사업 8-4 : 삼덕동 카페거리 활성화 지원  
전략사업 8-5 : '야한 거리 만들기' 봉산문화거리 활성화

**전략사업 9****도심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 전략사업 9-1 : 블록단위 협조형 공동주택 개발  
전략사업 9-2 : 친환경 도심형 주거단지 조성





## 민간주도의 도시재생 : 근대 문화 골목의 탄생



- 2001년 대구 대학 YMCA에 소속된 대학생 10여명에 의한 골목 기록 → ‘**대구 문화지도**’ 작성(2002년 1월에 설명회와 함께 발표)
- 2002년 10월 대학 YMCA 대학생들 +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 골목문화해설사 양성, ‘**대구골목문화가이드북, 골목은 살아있다**’ 발간
- 2007년, 지역문화예술활동가로서 활동해왔던 윤순영씨가 민선 4기 중구청장으로 취임 - 대구 도심의 근대역사문화에 도시재생사업이 더해지면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 시작  
20대, 21대, 22대 (2006~2018)
- 근대골목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은 대구의 역사문화관광의 핵심적인 테마로 급성장
- 2002년 말 사단법인 거리문화시민연대 조직
- 2007년 ‘**대구의 재발견 – 대구 新택리지**’ 발간
- 2013~2015년 인근 상가들과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근대골목만의 정체성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도심관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근대골목 관련 도시재생 사업 개요

일시	사업명	운영주체	비고
2007.07 ~2009.06	대구 근대골목 디자인 개선사업	문광부, 시청, 중구청	문화체육관광부 일상장소 문화생활공간 기획·컨설 팅 지원사업
2009.01 ~2012.02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 가 조성사업	민족시인 이상화고택 보존운동본부, 중구청	
2009.03 ~2011.07	근대역사문화벨트 만들 기 사업  종로, 진골목 가로환경 개선사업	국토부, 시청, 중구청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국토해양부, 살고 싶은 도 시만들기 시범사업
2013.03 ~2015.12	근대골목 관광활성화 사업	문광부, 시청, 중구청	문화체육관광부 도시관광활성화사업



## 대구 근대골목 장소성 컨셉 설정 배경

1. 도심에 집중된 고택, 일본식 가옥, 근대 산업시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거류민단이 조성한 신시가지(북성로 일대)가 보존되어 있었다
  -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전선이 지켜지는 덕분에 역사적인 흔적들이 파괴되는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
  - 정부 주도의 국토종합개발사업과 대도시로서의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심은 물리적 개발 사업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았다
  - 곧바로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이 가능하게끔 지역 자산에 대한 아카이브가 일정 수준 이상 구축이 되어있었고, 특히 주로 근대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유형의 지역자산들과 그에 깃든 인물, 이야기, 이를 뒷받침하는 고문헌 등이 있었다
2. 물리적 자산에 대한 관심과 가치 재평가가 민간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3.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결정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이 있었다

## 근대문화골목의 장소마케팅과 관광활성화사업

- 2007년도 근대문화골목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근대골목의 경관 개선, 공공디자인 도입
- 체계적인 골목투어프로그램 운영의 성과
- 2012년 : ‘한국관광의 별’
- 2012~2013년, 2015년 :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선’
- 2014년 : ‘대한민국 10곳 걷기 좋은 길’  
‘대한민국 경관대상’ 특별상
- 방문객의 숫자 증가 : 2008년 287명에서 2013년 20만 명으로.  
2018년에는 200만명까지 증가(대구일보, 2018.11.29)

<http://www.idaegu.com/?c=6&uid=399848>

특히 당시 도시형 도보여행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고, 대구 근대골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었음.

근대골목을 보다 적극 활용하여 도심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구청에서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도시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PT심사, 현장확인, 전문가 컨설팅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2013년 2월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됨.

## 근대路의 여행 확대 설정

- 2007 근대문화골목 개선사업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
- 2009년부터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출 : 대구 근대골목을 거니는 것이 근대 속으로 여행을 간다는 의미인 ‘근대路의 여행’ 이 다방면으로 사용되기 시작
- 2013년 5월 : 골목투어 ‘근대路의 여행’ 이라는 골목투어 팸플릿 제작, 배포
- 2015년 9월 : 중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근대路의 여행’ 을 상표출원





근대교회의 역행

스



(출처 : 대구 선택리지)

대구읍성(서장대의 위치가 현재의 약령서문자리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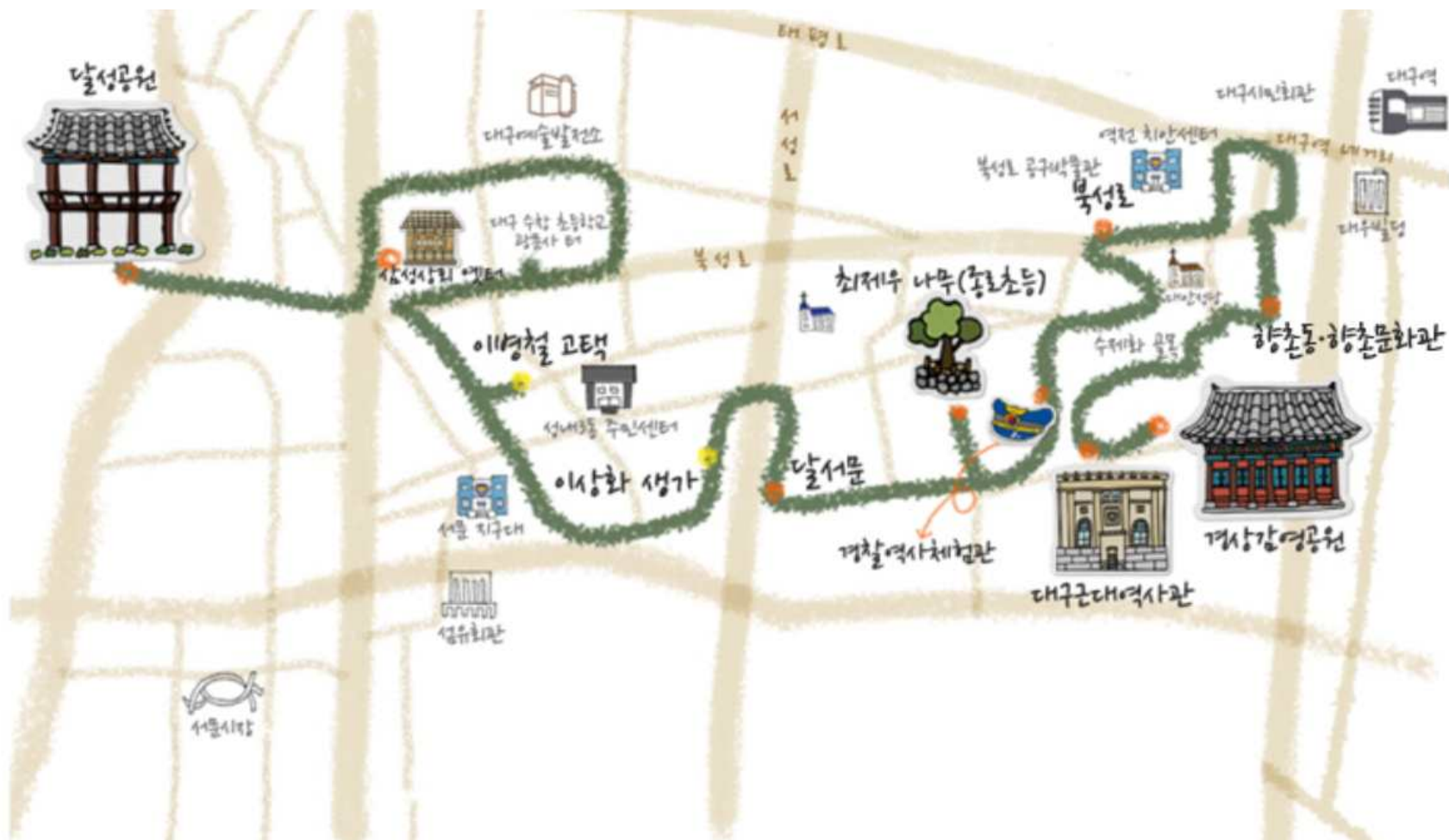
<https://map.naver.com/v5/?c=14314607.1243212,4283035.4187460,16,0,0,2,dh> 현재의 대구 지도



## 제1코스 경상감영달성길(3.25km / 탐방소요시간 2시간 30분)

이 길은 북성로와 서성로를 중심으로 달구벌의 그때 그 시절을 주제로 엮은 길이다. 총 3.25km로 천천히 걸어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대구의 옛 지명 ‘달구벌’의 기원과 조선시대 행정중심도시로서의 모습, 근대 상업발전의 근간 등 흘러간 시대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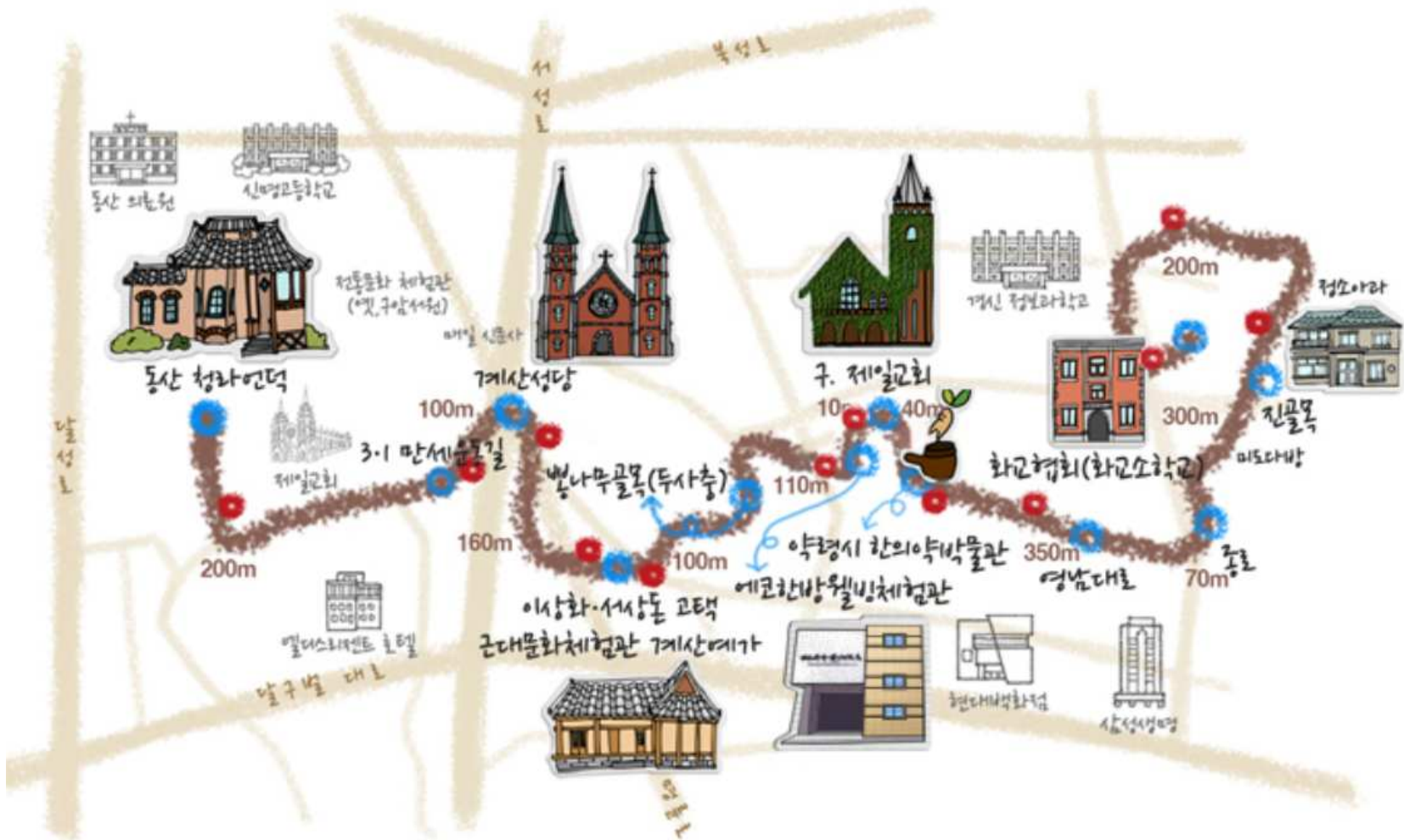
경상감영이 있었던 경상감영공원, 르네상스 양식의 근대건축물 대구근대역사관, 옛 변화가 향촌동, 수제화골목, 대구의 5, 60년대를 재현한 향촌문화관, 북성로, 경찰역 사체험관, 최제우나무가 있는 종로초등학교, 사라진 대구읍성의 달서문 터, 지금의 대기업 삼성의 모태가 된 삼성상회 터, 오토바이골목, 예술발전소, 삼국시대 축조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성이 남아 있는 달성공원 등이 연결된다.





## 제2코스 근대문화골목(1.64km / 탐방소요시간 2시간)

이 길은 근대문화의 발자취를 주제로 한 길이다. 1.64km의 비교적 짧은 코스이지만 볼거리가 많아 다 돌아보려면 2시간 정도 걸리며, 골목투어를 전국 유명 관광지로 만든 가장 인기 있는 핵심 코스이다. 동산 청라언덕, 선교사주택, 만세운동길, 계산성당, 제일교회, 민족시인 이상화와 국채보상운동을 주창한 서상돈의 고택, 근대문화체험관인 계산예가, 조선에 귀화한 중국인 두사충의 뽕나무 골목,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조선의 과거길 영남대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옛 대구의 변화가 종로, 화교소학교, 사투리로 길다름을 질다름으로 표현된 진골목이 이어진다.



년도	대구	칠곡(가산)
1419	세종원년, 군으로 승격하면서 크게 성장	
1592	임진왜란. 경상도로만 상륙한 왜군의 여러 부대 대부분이 경상도 권역을 통해 서울로 진격	
1593		왜군의 남해안 퇴각 이후 명나라 군사 등 5천 여명이 가산에 주둔
1596	선조 29년. 대구 <b>달성</b> 으로 감영 이전 (토성)	
1597	정유재란으로 감영 파괴(왜군이 불태움). 안동으로 감영 이전	
1601	<b>감영이 대구에 완전 정착(현재의 경상감영공원 위치로). 감사의 정착 근무</b>	
1640		가산의 내성 완성(관찰사 이명웅)
1700		확장공사 완성. 외성이 만들어짐
1736	영조12년. 둘레길이 2.65km 높이 3.5m가량의 대구 읍성(석성)이 만들어짐	





달성공원

‘여지도’ 에서 나타나는  
대구읍성과 달성  
(조선후기, 18세기 )



<https://namu.wiki/w/%EB%8B%AC%E0>



## 제1코스 경상감영달성길



경상감영 관풍루(경상감영의 정문)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제공)





달성공원으로 옮겨진 관풍루

출처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8B%AC%EC%84%B1%EA%B3%B5%EC%9B%90>



## 영남제일관 嶺南第一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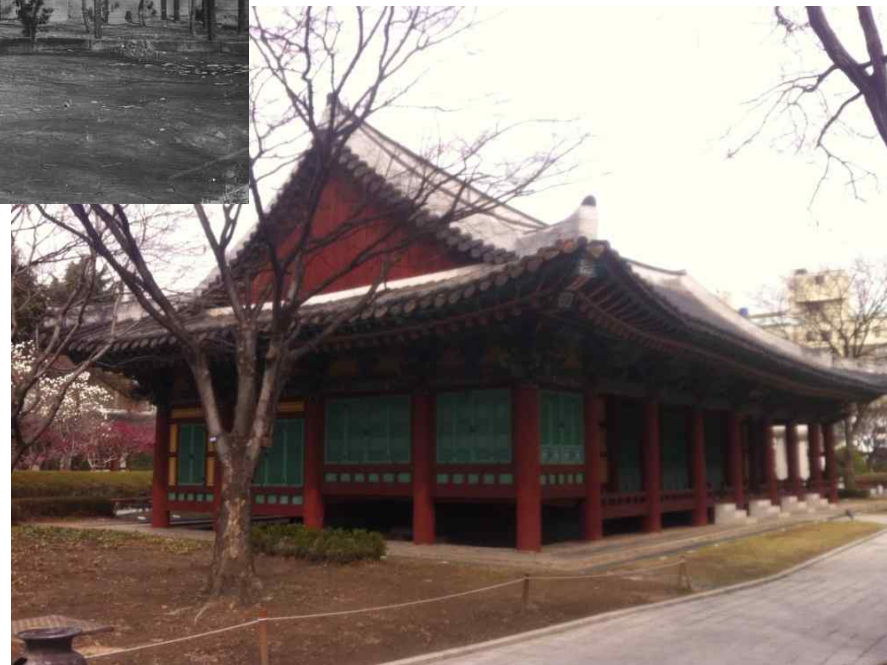






선화당(1909년,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현재의 선화당 ➡





## 경상감영공원의 이모저모

- 1601년 : 대구 현재 위치로 감영 이전
- 1910년~1965년 : 경상북도청사
- 1970년 : 중앙공원
- 1997년 : 경상감영공원





## 읍성의 파괴와 신시가지의 건설

- 1904 경부선 철도 건설
- 1905 대구역 완공
- 북문과 동문 일대 : 일본인 상인들이 활약
- 1906.10~1907.3 성벽철거 (관찰사 서리 박중양)
- 1908.12 4성로 개통

- 읍성의 중심지였던 남부와 서부 : 일시에 쇠퇴 → 별집모양의 미로형 가로망
- 저습지로서 주거공간으로서 부적절했던 북부와 동부 : 급속한 성장 → 계획적인 격자형 가로망 형성

